

브리지스톤-FIA, 브리지스톤 에코랠리컵 파트너십 체결

- 브리지스톤, FIA 에코랠리컵에 타이틀 파트너로 참여, FIA 정규 및 에너지 소비 경기에 브리지스톤 이름 사용
- 에코랠리컵 대회, 에너지 절약과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모터스포츠 참가자들의 긍정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는 레이싱 대회로 개조하지 않은 전기차로 경주 참여
- 브리지스톤의 엔라이트(ENLITEN) 기술 선보이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이 국제 모터스포츠를 주관하는 비영리 협회인 국제자동차연맹(FI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브리지스톤 FIA 에코랠리컵(Bridgestone FIA ecoRally Cup)의 타이틀 파트너로서 FIA와 획기적인 협업을 시작한다. 브리지스톤의 이름이 FIA의 정규 및 에너지 소비 경기에 등장하게 된다.

브리지스톤이 다년간의 후원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FIA가 주관하는 에코랠리컵 대회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랠리컵 대회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모터스포츠 참가자들의 긍정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는 레이싱 대회다.

에코랠리컵 대회는 2006년에 창설됐으며, 대회 경주에 참가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여야 하며, 경주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대회 경주에 참가하는 차량은 전기동력계를 탑재한 전기차로 일반 공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된 차량으로 차량 개조를 일절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일상에서

타고 다니는 자신의 차량으로 경주에 나설 수 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브리지스톤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브리지스톤에는 최고의 안전성과 탁월한 타이어 성능, 여기에 향상된 지속 가능성까지 구현하는 첨단 기술의 복합체인 엔라이트(ENLITEN)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브리지스톤이 FIA의 에코랠리컵에 참여함으로써 FIA 회원 클럽들의 더 많은 참여, 국제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브리지스톤의 헌신, 도로 안전에 대한 추진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브리지스톤과 국제자동차연맹의 파트너십 체결 행사가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관계 내빈과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10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다카기 도모유키 브리지스톤 글로벌 마케팅 전략 총괄 전무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하며 "국제자동차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에코랠리컵을 후원하게 돼 자랑스럽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혁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의 커밋먼트, '브리지스톤 E8 커밋먼트'와 궤를 같이한다"라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FIA 에코랠리컵과 같은 시도를 통해 탄소중립의 모빌리티 사회 구현에 전념하면서, 모빌리티 세계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휘틀리 FIA 랠리 디렉터는 "FIA 에코랠리컵 프로젝트에 브리지스톤이 장기적으로 후원하게 돼 기쁘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에코랠리컵이 지리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 지속 가능한 대회인 인지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라며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 및 모빌리티는 국제자동차연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